

# [요즘에] AX시대의 지식재산, 기업 경영의 핵심자산

✎ 김시형 | ⓒ 승인 2024.12.09 | □ 18면



▲ 김시형 한국발명진흥회 상근부회장

‘아이 엠 아이언맨 !(I am Iron Man)’

영화 ‘아이언맨’ 속 주인공 토니 스타크가 자랑스럽게 외친 말이다. 토니가 철갑 슈트를 입고 하늘을 누비고 화려한 임무를 완수하며 저런 대사를 과감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곁에 AI 비서 ‘자비스’가 있었기 때문이다. 영화 속 자비스는 아이언맨의 상태를 분석하고, 명령에 따라 즉각 대응하며,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등 최첨단 기술을 보여줬다. 이렇게 영화 속 이야기로 다뤄지던 기술들이 AX(AI Transformation·인공지능 전환) 시대를 맞이하면서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AI 가전, 자율주행, 다양한 예측 시스템 등 AI 기술은 빠른 속도로 발전과 혁신을 거듭하며 우리의 일상과 산업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AI 기술의 확산 속에 지식재산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막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자해야 하는 AI 융합 기술은 기업의 핵심 경쟁력이고 지식재산은 이러한 기술을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일 뿐만 아니라 공정한 경쟁과 창의적 혁신을 장려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AX 시대를 대비하는 정부와 민간의 노력도 눈여겨볼 만하다. 지식재산 정책의 주무 부처인 특허청은 최근 ‘지식재산 기반 역동경제 구현 전략’의 하나로 기업의 초거대 AI 개발에 필요한 특허 데이터를 개방하겠다고 발표했다. ‘초거대 특허전용 AI’가 실현되면, 기업은 개방된 특허 데이터를 활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강원특별자치도는 2027년까지 인공지능 의료설루션과 의료기기를 개발할 예정이며,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AI 기술을 관광에 접목한 스마트 관광에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또 제조, 관광,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 산업을 성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도내 기업과 연구기관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도내 기업들도 AI 활용에 적극적이다. 주식회사 더픽트는 생성형 AI를 일반 업무에 적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도심의 재난 예측 및 관리가 가능한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디지털트윈 기술에 AI를 적용하는 등 사업 영역을 확장 중이다.

(주)아이들은 일상의 서비스를 디지털로 전환한 일정 공유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서비스 운영에서 생성된 사용자의 데이터와 AI를 결합해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한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주)케이메디캠은 AI 및 분자모델링 기술을 활용하여 신약 개발 중에 있으며, 자체 구축한 화합물 라이브러리 데이터베이스와 AI 기반 신약 설계 플랫폼을 통해 신약 개발의 성공 확률을 높이고 개발 시간을 단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민관을 막론하고 점점 더 많은 분야에서 AI가 적극 활용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영에 도움을 주고자 한국발명진흥회의 강원서부지식재산센터는 강원특별자치도와 함께 오는 19일 춘천에서 '중소기업 IP(지식재산) 미래포럼'을 개최한다. 'AX 시대의 지식재산,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한 기술혁신'이라는 주제로 신기술 트렌드와 더불어 지식재산 기반 기업의 경영 해법을 다양한 관점에서 다룰 예정이다.

아무쪼록 이번 포럼이 도내 기업에 새로운 지식재산 경영체계 도입을 통해 이른 시일 내에 '내가 바로 아이언맨'이라고 외칠 수 있는 기업전환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김시형